



# 구루메 가톨릭교회



이데 요시오 토마스 아퀴나스  
사회의료법인 눈(雪)의성모회 성마리아병원 이사장

## + 주님의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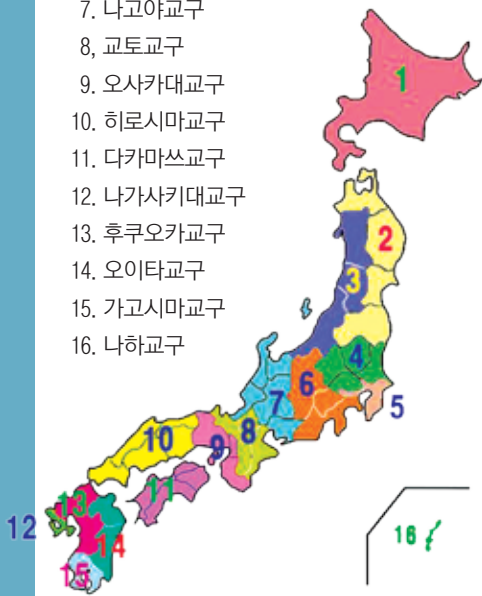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건승한 활동을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저희 법인의 근거지에 있는, 후쿠오카 교구의 '가톨릭 구루메 교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일 가톨릭의료기술협력협정에 의한 연수생 교류를 통해 일본에 오신 분들은 일요일, 축일미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가톨릭교회는, 16개 교구에 793개의 소교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 시점으로 주교·사제·부제의 총수는 1,454명이며 수녀 총수는 5,515명, 수도자 177명, 신학생 105명 그리고 신자 총수는 444,71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교구는 도쿄교구로서 98,303명입니다. 그다음으로 신자가 많은 곳은 나가사키교구로 62,216명의 신자가 속해 있습니다. 인구 대비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교구는 나가사키교구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교구는 규슈의 후쿠오카 현, 사가 현, 구마모토 현까지 3개의 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자 수는 29,786명으로, 도쿄교구, 요코하마교구, 오사카교구 다음으로 신자 수가 많습니다.

'가톨릭 구루메 교회'는 예수회 연보에 따르면, 당시의 구

1. 삿포르교구
2. 센다이교구
3. 니가타교구
4. 사이타마교구
5. 도쿄대교구
6. 요코하마교구
7. نا고야교구
8. 교토교구
9. 오사카대교구
10. 히로시마교구
11. 다카마쓰교구
12. 나가사키대교구
13. 후쿠오카교구
14. 오이타교구
15. 가고시마교구
16. 나하교구





▲ 복원된 키리시탄 교회. 구루메 시청 2층 로비에 전시  
◀ 미라엘 소레 신부 ◀◀ 구스타브 로 신부

루메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구루메 번(영)주 모리 히데카네(1587~1600년)가 세례를 받고 키리시탄(가톨릭 금교령이 내려졌던 시기의 가톨릭 신자를 뜻함) 다이묘(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가 되면서, 신자를 위해 성 근처에 교회당을 건립한 것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의 가톨릭 신자 수는 7,000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600년, 모리 히데카네는 전국 무장 동지 전쟁에서 패하여 성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후로 도쿠가와 막부에 따른 키리시탄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가톨릭 신자의 박해, 잠복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1865년 나가사키 오우라 천주당에서 프치장 신부님에 의해 ‘숨어 있던 키리시탄’이 발견되었고, 1878년에 프치장 신부님의 명에 따라 미카엘 소레 신부님이 구루메로 부임하여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1921년은 소레 신부님의 후임인 구스타브 로 신부님에 의해 현재의 위치에 서양식의 시계탑이 붙은 붉은 벽돌 양식의 교회가 봉헌되었으나, 1945년 8월 1일의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군의 공습에 의해 소실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1948년, 후쿠오카교구에 일본인 타나마치 신부님이 부임하게 되면서 가톨릭 선교 활동 및 새로운 교회 건축의 검토를 시작하게 됩니다. 1955년 5월 15일, 후카호리 주교님 집전의 성대한 헌당식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톨릭 구루메 교회’는 저희 법인의 시작 이래 모든 활동의 중심입니다. 특히, 본 법인의 전신인 ‘이데의원’을 운영하고, 그 뒤를 이어 ‘성마리아병원’을 개설하였을 때는 본 법인의 임원으로 타나마치 신부님이 취임하셨습니다. 그 후 ‘구루메 가톨릭교회’에 취임하신 신부님들에 의한 수도회, 가톨릭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들은 저희의 활동에 탄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재 본 법인에는 후쿠오카교구 소속 신부님이 한 분 취임해 계십니다.

저희 성마리아그룹의 일본 국내 활동을 비롯하여 한국가톨릭의료협회와의 27년에 걸친 협력 관계는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활발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

# 久留米カトリック教会

社会医療法人 雪の聖母会

聖マリア病院

理事長 井手義雄

## † 主の平安

皆様、こんにちは！皆様方におかれましては、ご健勝でご活躍のこととお慶び申し上げます。

今回は私どもの法人所在地にあります、福岡教区の「カトリック久留米教会」をご紹介致します。日韓カトリック技術協力協定による研修生の皆様方の日曜日、祝日のミサの礼拝でご存じの方もいるかと思えます。

日本のカトリック教会は、16の教区、793の小教区で構成されています。2013年12月現在の司教・司祭・助祭の総数は、1,454人、修道女総数、5,515人、修道士総数、177人、神学生総数、105人、信者総数、444,719人です。カトリック信者が最も多い教区は、東京教区で98,303人です。次に信者の数が多いのは、長崎教区で62,216人です。人口に対するカトリックの信者が占める割合の比率が高い教区は、長崎教区で4,3%となっています。福岡教区は、九州の福岡県、佐賀県、熊本県の3県をカバーしています。信者の数は、29,786人で、教区としての信者の数は、東京教区、横浜教区、大阪教区に次ぐ数字となっています。

さて、「カトリック久留米教会」ですが、イエズス会年報によれば、当時の久留米地区を統治していた久留米藩主の毛利秀包(1587年～1600年)が、洗礼を受けキリシタン大名として、信者のためにお城のそばに教会堂を建立したことに始まります。当時のカトリック信者の数は、7,000人に達していたと言われ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1600年、毛利秀包は戦国武将同志の戦に敗れお城を追われる結果となり、その後徳川幕府によるキリシタン禁制により、カトリック信者の迫害、潜伏の時代となりました。1865年、長崎の大浦天主堂でプチジャン神父により「隠れキリシタン」が発見されますが、1878年、プチジャン神父の命により、ミカエル・ソーレ神父が久留米に赴任し宣教を開始、1921年は、ソーレ神父の後を継いだグスタブ・ロー神父により、現在の地に西洋風の時計台が付いた赤れんがの教会が献堂されましたが、1945年8月11日の第二次世界大戦による米軍の空襲により焼失しました。

第二次世界大戦後の1948年、福岡教区より日本人の棚町正刀神父様が赴任され、カトリックの宣教活動及び新しい教会建築の検討が開始されました。1955年5月15日、深堀仙右衛門司教様により聖堂の献堂式が盛大に執り行われ、現在に至っています。

「カトリック久留米教会」は、当法人の開設以来の活動の中心です。特に、当法人の前身の「井手医院」の運営、その後の「聖マリア病院」の開設にさいしては、当法人の役員に棚町神父様が就任されました。その後、「久留米カトリック教会」に就任された神父様方による修道会、カトリック関係機関との連携、ご協力は、私どもの活動の基盤となっています。現在当法人へ福岡教区より神父様が役員の一員として就任されています。

日本での活動また韓国カトリック医療協会との27年間に亘る協力関係も、神様の祝福の中で行われています

神に感謝